

1次 不合格에서 司試 首席合格까지 - 나는 이렇게 工夫했다 -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송의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담당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부 인권정책과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李 善 愛

I. 글 머리에

안녕하십니까? 살을 에는 겨울 추위속에서도 모두를 건강하십니까. 考試界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실은 합격도 운이 좋았던 덕분인데 뜻밖으로 수석합격을 하게 되어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달라는 考試界社의 합격기 청탁을 받게 되니 쑥스럽기도 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아무쪼록 어느 한 운 좋았던 사람의 예였다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목적과 각오

사법시험이란 솔직히 말하여 ‘출세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빵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관문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司法試驗의 합격만으로 모든 꿈이 달성되고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손에 쥐게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司法試驗의 통과가 종국적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어서의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되었고, 司法試驗이란 하나의 전문자격시험으로서 ‘고등고시’ 아닌 ‘보통고시’로 되었다고들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진대 그렇다면 맹목적으로 시험에 임하기 앞서 나는 왜 시험을 보려 하는가, 왜 굳이 법조인이 되려하는가를 곰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단 순히 신분상승에의 집착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법조인으로서의 사명, 역할이 결합되어 뚜렷한 목적 내지 司法試驗에 도전하는 이유가 마련되어 있을 때 합격의 제1차적 조건이 구비된다고 여겨집니다.

수험기간 도중 몇 번이고 찾아드는 슬럼프,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순간들과 맞닥뜨려질 때마다 내가 꼭 司法試驗을 봐야만 할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즉 목적이 뚜렷해야만 바윗돌같이 버틸 수 있는 인내와 각오가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III. 일상생활, 공부장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각자 성격과 체질에 따라 낮에 공부할수도, 밤에 공부할수도 있고 혼자 공부할수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부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일상생활이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엄격했으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생활과 같도록 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대화, 식

사, 족구나 원반날리기 등의 레크레이션, 데이트, 기타 등등을 정상적인 패턴에 따라 삼가함이 없이 영위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속세와 단절하고 혼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것이 성격상 맞거나 효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고시가 한두달 버티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소요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끔 적 정상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무리없이 2년을 견뎌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공부장소는 위에서 말한 취지상 학교도서관을 택하였습니다. 고시원이나 절, 자기집 등에 비해 산만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사람들과의 대화와 정보의 교환, 운동 등이 가능하므로 항상 자신을 재충전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두껍고 어려운 책은 부적당

공부시간은 대략 등교시-점심식사, 점심식사 후-저녁식사, 저녁식사 후-하교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3~4시간씩 하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식후에는 족구나 탁구, 기타의 운동을 함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중간 중간 공부하다말고 30분씩 쉬기도 하며, 결국 매일의 공부시간은 순전히 공부만 한 시간만 합하면 약 8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체력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장 알맞은 양이 아닌가 싶고, 사실 매일 10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장기에 가서는 제대로 공부한 시간만 치면 역시 8시간 정도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매일 여러 과목을 번갈아 보는 것은 가방도 무거워지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게 되어 피했고 12주일에 한 두권의 책을 계속 읽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아침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려했는데 아침에 많이 해두면 그날은 오후부터는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날 읽어야 할 분량이 120페이지라면 오전에 열심히 읽어서 50페이지를 읽어두면 점심식사후에 35페이지, 저녁식사후에 35페이지씩만 읽으면 되는 것이고 오전에 40페이지만 읽었다면 하루종일 그 페이스대로 읽어야 하므로 아주 피곤한 하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에서는 매일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매일 앉는 자리가 바뀌면 산만해지기도 하지만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해 일찍 오는 버릇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여러 달이 지나면 지루해지기 쉬우므로 열람실을 바꿔보든가 법대중앙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공부장소를 바꾸는 등으로 기분전환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면에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자신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 마음에 드는 장소, 쾌적한 분위기 등이 갖추어진 여건에서 공부하도록 하여서 가장 덜 피곤하고 덜 힘들며 오래 공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IV. 책 선택, 자료의 정리

과거와는 달리 두껍고 심도깊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 공부량이 과증하게되고 책 선택에 갈피를 못잡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각 과목마다 가장 두꺼운 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전체 과목들을 모두 합한 경우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소화하여야 하므로 2회독, 3회독이 거듭될수록 힘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주 부실한 것이 아니라면 될수록 얇고 빨리 읽어치울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법시험 답안이란 것이 아주 심오한 이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내용을 빠짐없이 써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지나치게 잡다하게 특별한 주제의 논문들을 구해 읽느라 애쓸 필요도 없겠습니다. 또한 남들이 읽는 책이 더 좋아보여서 이책저책 다 사보다가 집에 도서관을 차리게 되는 수가 많은데, 오히려 한 권의 책만을 수회 반복하여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겠습니다.

저는 책 선택에 있어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조언에 주로 의존하고 몇 권은 물려받는 식이었는데 그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권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험>(기: 기본서, 문: 문제집)

- 헌법: 권영성(기), 강창웅 저(문)
- 민법: 광운직 시리즈, 친족법은 민법개설(기), 김용한 저(문)
- 형법: 장준철총론, 진계호각론(기), 정성근 저, 3인 공저(문)
- 경제학: 박홍립 저(기), 홍종인 저(문)
- 국사: 새국사(기), 강정식 저(문)
- 문화사: 조좌호 저(기), 강정식 저(문)
- 독일어: 현대독일어(기), 이유영 저(문)
- 국제사법: 김명기 저(기, 문)

〈2차시험〉(기: 기본서, 문: 문제집)

- 헌법: 권영성(기), 문제집은 불필요
- 민법: 박운직 시리즈(기), 서동우·오관석(문)
- 형법: 장준철총론, 정영일각론(기, 문)
- 행정법: 상은 박운혼 저(기), 下는 이상규 문제집으로
- 상법: 회사법은 이태로·이철송 저, 어음수표법은 정희철 저 下 또는 정동윤 저, 총론, 보험해상은 정희철 저
- 민소법: 이시윤 저(기), 고시계(문)
- 형소법: 이재상 저(기), 문제집은 불필요
- 윤리: 형철사(기), 문제집은 불필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어떤 책을 고르든 자꾸 바꾸지 말고 계속 읽어 소화해 버리는 ‘단권주의’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식 單券化는 避해야

한편 단권주의를 하다보면 그 책에서 아예 다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끼워넣기, 즉 단권화의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보통 고시잡지의 예상문제나 다른 교과서의 일부를 복사해서 군데군데 끼워넣게 되는데 끼워넣는 자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역시 소화해내기 힘들게 되므로 꼭 필요한 것만 끼워넣는 것이 책보다 더 많은 분량이 되어버려 마치 백과사전을 만들게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고 그 책에서 아무래도 부족하다 싶은데 “A급 예상문제다.”라는 경우등에만 보충에 넣으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끼워넣기가 되어 있는 선배의 책을 물려받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공부해야 할 책과 자료의 정리는 합격에 꼭 필요하고도 충분한 만큼만 준비하면 될 것이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일찍 오버페이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 각 과목별 공략방법

과거와는 달리 제1차시험이 제2차시험보다도 더 힘든 관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모든 수험생들이 제1차시험 준비를 아주 착실히 하는 경향이므로 전에 한번 제1차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이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시합격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적어도 1월 내지 2월부터는 제1차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외국어선택과목을 착실히 해에 할 것입니다. 제 경우는 매일 오전시간은 외국어과목만을 제1차시험이 있기 전날까지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또 헌법, 민법, 형법, 경제학의 네과목은 개학이전까지 충실히 기본서, 문제집까지 공부해 놓고 개학이후부터 국사, 문화사, 국제사법의 순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국사, 문화사, 국제사법은 암기과목에 속하는 것이므로 겨울방학때부터 미리 봐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달정도를 과목별 시간배분을 잘해서 복습하되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 많고 시간은 촉박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전 한달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비라고 합니다.

다음, 제2차시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동시합격을 노리는 경우 제1차시험 후 3일간은 쉬고 두달동안 1~2회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1년 동안 착실히 3~4회독을 하고 시험보기전의 1달여 정도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 경우는 중요한 제2차시험대비로서 그룹스터디와 서브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는 과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순서는 가장 자신없는 과목부터 점차 자신있는 과목의 순으로 하는 방법과 司法試驗 시행순서의 역순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의 틀로 나뉘는 바 구체적이고 자질구레한 사항들 보다는 각 부분이 어떠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차시험 輕視는 낭패초래

국민윤리는 먼저 사람과 사회라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윤리의 필요성, 또한 현대 산업사회와 물질문명 속에서의 인간의 소외문제 및 동양의 정신문화와 서구 물질문명의 갈등이 빚어진 한국의 상황, 이의 극복 대안으로서 한국의 전통사상과 그 계승할 요소들, 나아가 그리하여 이룩하여야 할 민주사회의 비전과 그에 요구되는 정치·경제윤리, 이러한 민주사회 실현의 장애세력인 공산주의와 북한, 이로부터의 위협의 극복과 남북통일이라는 전체적 스토리체계를 갖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어떠한 문제가 출제된 경우라도 이러한 스토리체계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갖는 나름대로의 특수한 성격이 있는 바, 이것이 무엇인가를 추출해내어 이를 기본으로 그 위에 구체적 사항들을 체계있게 쌓아올리

되, 법치행정의 원리가 행정법의 원천이 되는 것이므로 항상 ‘법률의 근거’와 ‘개인의 권리구제’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법은 주로 회사법에서 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쯤은 어음수표법에서 큰 문제가 나올 때도 되었지 않았나 합니다. 회사법은 총론, 설립, 주식, 기관, 증·감자, 사채의 맥락으로 짜여져 있고, 항상 회사라는 ‘단체’에 걸려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주주, 회사채권자, 기타)들의 이익보호라는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했고, 어음수표의 경우는 신속하고 확실한 지급보장을 통한 유통성의 확보와 어음수표에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이익조절의 관점을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은 가장 분량이 많아 애를 먹는 과목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모든 법과목의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그 체계와 내용을 기본서에 의하여 잘 소화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민법에 대한 감을 잡은 후에는 제 경우 서동우·오관석 저 문제집으로 계속 읽었는데 이런 방법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은 총론만 잘 이해한다면 각론은 크게 문제됨이 없을 것입니다. 총론을 이해하는데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정독에 정독을 거듭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점수가 후한 과목이라고 하나 안심하다가는 쉽사리 과락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법체계이므로 공부하기가 까다롭기도 합니다만 민사소송법에서는 ‘辯論主義’, 형사소송법에서는 ‘人權保障’이라는 핵심개념을 고리로 하여 모든 문제를 연결시켜 공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VI. 그룹스터디, 서브노트트의 활용

요사이 그룹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룹스터디는 잘 운영만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공부리듬을 잃게 되고 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모두 그룹스터디를 반드시 해야만 합격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룹스터디 중에는 성원 대부분이 불합격하고만 경우도 있고 그룹스터디를 하지 않고서도 고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 경우는 그룹스터디를 통해 많은 실력향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나 이미 합격한 선배가 출제하여 준 문제를 놓고 모의시험을 치르는 방식의 스터디였는데, 이렇게 하여 결국은 수신회의 실전경험을 가진 셈이 되었고 답안지를 요령있게 작성하는 기술을 체득함은 물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답안을 메꾸어 내는 배짱을 키움으로서 실제 시험장에서 전혀 긴장함이 없이 답안지를 마주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두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과 두 시간 단위로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의하여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알기 위한 공부보다도 잘 쓰기 위한 공부가 모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브노우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찬반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보다 공부한 효과가 크겠지만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크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서브노우트의 활용으로 많은 덕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브노우트는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론 공부가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매 시험전일에 각 과목의 전체를 훑어보기 위하여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아무리 평소에 잘 봐둔 문제도 시험전날 보아두지 못하면 잘 쓴 답안을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험전날에는 다음날의 두 과목을 반드시 1회독 하여야 하고, 이는 교과서로는 절대불가능하지만 얇게 정리된 서브노우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sub-note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

제 경우는 선배의 서브노우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좀 주의할 점이 있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서브노우트를 만들다 보면 차라리 책을 그냥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서브노우트는 대개 과목당 대학 노트 1~2권 정도로 간단히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만드는데 시간과 수고도 절약되고 다시 보기에도 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서브노우트도 많이 알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잘 써먹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VII. 건강관리와 슬럼프의 극복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공부도 상당히 고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양가가 많은 식사와 과일 등을 충분히 먹고 빵이나 라면, 커피, 청량음료는 몸을 쇠약하게 하므로 먹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수험생활이 몸을 긴장시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므로 몸을 자주 이완시켜 주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경우는 매식후마다 족구나 탁구를 함으로써 몸을 풀어 주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이 해서 몸이 피곤해지도록 하면 안될 것입니다. 또 수년의 수험생활에는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 경우는 9월에 한번 이듬해 3월에 한번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보통 슬럼프에 빠지면 마음이 더 초조해져서 더욱 상태가 악화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슬럼프의 원인을 탐색해 보아 체력적 한계가 원인이라면 영양보충도 하고 며칠 쉬기도 하여야겠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사람들과 대화로서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은 수험생활에 닥쳐오는 슬럼프는 하나의 고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넘기면 다시 생활이 금세 안정될 것입니다.

VIII. 맺음말

이상 제가 겪었던 경험을 주로 해서 다소나마 참고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자기만의 방법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합격의 요체는 역시 나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적었던 모든 것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각자 자신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겨울에도 몸 건강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와 각오에 합격의 영광이 보답되기를 바랍니다.